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6.21(금) ~ 2024.6.27(목)

제공일시 2024 07 0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6.21(금) ~ 2024.6.27(목)

제공일시 2024 07 0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낙농 강국 덴마크 '농업 탄소세' 걷는다

- 낙농 강국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농민들에게 '농업 탄소세'를 부과함
-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농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t당 300덴마크 크로네(약 43달러·약 5만9340원)의 세금을 2030년부터 부과한다고 밝힘
- 5년 후에는 세금이 t당 750덴마크크로네(약 107달러·약 14만7660원)로 인상될 전망이지만, 이 경우 정부는 더 높은 세금 공제 혜택을 약속함
- 덴마크 정부는 농업 탄소세를 통해 203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80만t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아시아경제 2024.6.25) 김중화 기자

### 2. 日정부, 플라스틱 사용 제조업 규제 강화... "재생재 사용 목표·실적보고 의무화"

- 일본 정부가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조업에 대해, 재생재의 사용량 목표 설정과 사용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함
- 일본 국내에서 회수되는 폐플라스틱은 대부분 소각 처분되고 있어 규제 강화를 통해 탈탄소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임
-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서 자원효율이용촉진법의 개정을 목표로 추진함
- 규제강화 대상은 자사 제품 제조 과정에서 일정량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업종으로, 경제산업성 등에 따르면 포장·용기나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전자재 등에서 소비량이 많아 이들 업종이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함

(뉴스 2024.6.26) 박준호 기자

### 3. EU '도시 탄소중립' 전담 금융기구 출범... 6500억유로 유치목표

- 유럽연합(EU)이 도시의 탄소중립을 앞당기는데 필요한 자금 6500억유로(약 968조원)를 확보하기 위해 전담 금융기구를 출범함
-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기후도시자본허브(Climate City Capital Hub)'를 발족함
- 이 기구는 EU가 지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기후중립 및 스마트도시 2030' 이니셔티브를 실행할 자금을 확보하고 해당 도시에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함

(뉴스트리 2024.6.26) 이재은 기자

### 4. EU, 독일 수소 네트워크 구축에 4조4000억원 지원 승인

- 유럽위원회(EC)가 독일의 수소 파이프라인 시스템(HCN) 건설을 위해 30억유로(약 4조4652억원)의 국가 지원을 승인함
- 독일은 200억유로(약 29조7684억원) 규모의 수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할 기업에게 2025년부터 초기 손실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재정 보증을 제공할 계획임
- EC는 수소 사용 촉진이 EU 경쟁 및 무역 왜곡 가능성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며, HCN은 독일 내 장거리 수소 운송 파이프라인의 기반이 되고 여러 회원국을 연결하는 유럽 수소 고속도로의 일부가 될 것으로 전망함

(글로벌이코노믹 2024.6.25) 김진영 기자

## 1. 다음달부터 17조 반도체 저리대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 정부가 2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함
- 이번 대책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나온
- 한국은 7월부터 KDB산업은행을 통해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함. 지원 대상은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국내외 기업임
- 아울러,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현재 3000억원에서 2027년까지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함.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함. R&D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확대함

(중앙일보 2024.6.26) 나상현 기자

## 2. 환경부, 녹색분류 이해관계자협의체 발족

- 환경부는 27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이해관계자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함
- 환경부는 ‘녹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되 산업계, 금융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제로 개정할 목적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이해관계자협의체’를 운영함
- 협의체는 4개 환경목표별 세부분야에 따라 전문가, 산업계, 금융계, 시민사회,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됨
- 1차 회의에서는 순환경제 중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관련되는 경제활동을 논의할 예정임

(데일리안 2024.6.26) 배군득 기자

## 3.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주식처럼 거래 가능

-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 코스콤과 26일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번 협약은 내년 상반기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을 앞두고,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됨
- 한국거래소는 2014년부터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됐으며, 이번 위탁거래 시스템 도입에 따라 매매체결 및 청산결제의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기존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임
- 코스콤은 현재 운영 중인 호가 입력 시스템과 더불어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위한 정보통신(IT)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임

(S-저널 2024.6.25) 전해리 기자

## 4. 尹 “포항 2차전지·여수 LNG… 기회특구 20곳 지정”

-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해 전국 8개 시도 20개 지역을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함
- 경북 포항에는 2차전지를 테마로 77만평(약 254만5454.5m<sup>2</sup>) 규모 특구가 조성됨. 경북 구미에는 반도체와 2차전지, 방산 분야에 특화한 특구 57만평(약 188만4297.5m<sup>2</sup>)이 조성됨. 전남 여수에는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수소 생산·발전 관련 특구가 34만평(약 112만3966.9m<sup>2</sup>) 규모로 들어섬. 전남 광양·여수·순천에는 2차전지 소재 특구가 47만평(약 155만3719m<sup>2</sup>) 규모로 만들어짐. 전북 전주에는 탄소섬유 특구가 29만9000평(약 98만8429.7m<sup>2</sup>) 규모로 조성됨
-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하는 제도임

(매일경제 2024.6.20) 홍혜진, 우재윤 기자

## 5. 환경부, 바이오가스 육성… 연간 온실가스 100만톤 감축

- 환경부가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확대함
- 20일 환경부는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 Nm<sup>3</sup> 생산하겠다고 밝힘
- 이를 통해 연간 유기성 폐자원 557만톤(t)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2300억원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100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함
- 정부는 먼저 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함. 또,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함

(아시아투데이 2024.6.20) 이정연 기자

(연합뉴스 2024.6.20) 이재영 기자

## 1. 폭스바겐, 美 전기차 리비안에 7조원 투자 소식에 리비안 주가 50% 급등

- 독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이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에 50억달러(약 7조원)를 투자할 방침임
-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폭스바겐은 10억달러(약 1조3795억원)를 리비안에 투자해 지분을 확보할 계획임. 이후 40억달러(약 5조5180억원)를 추가로 투자해 리비안과 합작회사를 설립할 계획임
- 폭스바겐과 리비안은 합작회사가 “같이 통제되고 소유될 것”이라며, “첨단 소프트웨어를 갖춘 ‘차세대’ 배터리로 구동되는 차량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힘

(와이드경제 2024.6.26) 김민재 기자

## 2. “언제 화해했었나?”... 미국과 중국, 손잡고 AI반도체 만든다

- ‘숏폼 플랫폼’ 틱톡 운영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과 손잡고 AI 반도체를 개발하기로 함
-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트댄스와 브로드컴은 5nm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계약이 성사될 경우 생산은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담당할 예정임
- 양사가 개발 논의 중인 반도체는 주문형반도체(ASIC)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함

(매일경제 2024.6.25) 문가영 기자

## 3. 도쿄전력, 공장 수소 공급 사업 2026년 시작

- 도쿄전력이 공장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를 공급하는 사업을 2026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이 24일 보도함
- 도쿄전력은 도레이, 야마나시현과의 합작사를 통해 기업의 공장에 수소 제조 장치를 설치할 계획임. 수소는 공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등 잉여 전기를 이용해 생산·저장됨
- 그린수소를 열원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일본에서 드물다고 닛케이는 보도함

(파이낸셜뉴스 2024.6.24) 김경민 기자

## 4. MS, 또 크레딧 구매... 사상 최대 규모의 자연기반 탄소제거 계약

-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재삼림화와 복원을 통해서 생성된 자연기반 탄소 제거 계약을 사상 최대 규모로 체결했다고 ESG투데이가 18일(현지시간) 전함
- MS가 2043년까지 800만 톤에 달하는 배출권을 구매한 곳은 BTG 팩추얼(Pactual)의 자회사인 팀버랜드 투자그룹(TIG)임
- 양측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MSCI 탄소시장 데이터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 제거 크레딧 거래라고 함

(임팩트유 2024.6.20) 홍명표 기자

## 5. 中, 태양광 이어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美에 신규 공장 건설 추진

- 미국, 유럽 등지에서 관세 부과 등 친환경 산업의 수입산 제품에 대한 제제가 잇따르면서 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략을 통해 수출 위험을 줄이기에 나섬
-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국의 ‘고션 하이테크(Gotion)’, ‘캡켄(Capchem)’이 미국에 신규 공장 건설을 추진함
- 이들이 해외 시장 건설을 서두르는 것은 미국, 유럽 등과 같은 신에너지차(New Energy Vehicle, NEV) 시장이 공급망 기업에 대한 현지화 요구가 강해지면서 수출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임

(인터스트리뉴스 2024.6.24) 정한교 기자

### 1. 엑손모빌과 손잡은 SK온... 미국산 리튬 확보로 IRA 해법 찾는다

- SK온이 글로벌 석유기업 엑손모빌과 협력해 미국산 리튬 공급망을 넓힘.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이후 전기차 산업 본격화에 대비해 2차전지 원자재 선점에 나선 모양새임
- SK온은 26일 엑손모빌과 리튬 공급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힘
- 이번 협약으로 SK온은 엑손모빌이 미국 아칸소주 리튬염호에서 직접추출 기술로 생산하는 리튬을 최대 10만까지 공급받을 전망이다. 차후 있을 본 계약 후 일정 및 물량이 확정됨

(매일경제 2024.6.26) 김희수 기자

### 2. 현대엔지니어링, 브라질원자력산업과 회동... SMR·우라늄 광산개발 논의

- 현대엔지니어링이 브라질 과학기술혁신통신부 산하 공기업인 브라질원자력산업(INB)과 회동함. 이 자리에선 SMR(소형모듈원전)과 우라늄 광산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
-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맹철규 현대엔지니어링 상파울루 지사장은 최근 리우데자네이루에 위치한 브라질원자력산업 본사에서 브라질원자력산업과 만나 SMR 건설 참여와 우라늄 광산 개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 현지 광산기업인 ADL그룹 관계자들도 참석함

(더구루 2024.6.25) 정동용 기자

### 3. 포스코퓨처엠 수주 탄력 GM에 양극·음극재 공급

- 포스코퓨처엠이 캐딜락 브랜드의 고급 전기차 리릭에 양극재와 음극재를 공급함
- 포스코퓨처엠의 양·음극재를 모두 사용하는 첫 사례로, 향후 출시되는 GM의 차세대 전기차 모델에는 일반화될 전망이다
- 26일 포스코퓨처엠은 캐딜락 리릭에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음극재를 제공한다고 밝힘
- 리릭을 시작으로 얼티엄 플랫폼으로 제작되는 GM 계열 전기차에는 포스코퓨처엠의 양·음극재가 들어갈 예정임

(매일경제 2024.6.26) 김희수 기자

### 4. 한화큐셀, 태양광 생산단지 '솔라 허브' 내년 본격 가동/ 한화큐셀, 미 개발사와 태양광 등 파트너십 확대 체결

-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북미 태양광 밸류체인 '솔라 허브'를 2025년에 전면 가동함. 조 단위 투자를 쏟은 솔라 허브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수주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
- 한화큐셀은 솔라 허브의 핵심 공장인 달튼, 카터스빌 공장을 통해 현지 수요에 대응해 나갈 전망이다
- 또,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은 미국 상업용 태양광 개발업체인 서밋 리지 에너지와 2027년까지 총 2GW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고, ESS(에너지 저장장치) 프로젝트 협력을 가시화하는 내용의 파트너십을 체결함

(CEO스코어데일리 2024.6.22) 박대한 기자

(OBS뉴스 2024.6.21) 최한성 기자

### 5. LS전선, LG엔솔·스텔란티스 합작사에 대용량 전력시스템 공급

- LS전선이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합작법인 넥스트스타에너지 공장에 버스덕트를 공급한다고 밝힘
- 24일 LS전선은 캐나다 넥스트스타에너지 공장에 대용량 전력배전시스템인 버스덕트를 납품한다고 전함
- 넥스트스타에너지는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음
- 버스덕트는 조립식으로 설치해 전선보다 설치와 이동이 간편하고 전력 사용량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음

(매일경제 2024.6.24) 정유정 기자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6.21(금) ~ 2024.6.27(목)

제공일시 2024 07 0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美 환경청과 에너지부, 메탄 감소 위해 1조원 이상 지원 발표

(임팩트는 2024.6.26) 홍명표 기자

- 미국 환경보호청(이하 EPA)과 에너지부(이하 DOE)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Invest in America)’의 일환으로 석유와 가스 부문의 메탄 배출을 모니터링, 측정, 정량화, 감축하는(MRV)는 프로젝트에 8억5000만달러(약 1조1811억원)를 지원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는 지난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 정책으로, 미국 내 인프라와 제조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를 통해 경제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일으키고자 만들어진 제도임
- 이번 발표는 바이든 행정부 전반에 걸쳐 메탄 오염을 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로, 연방정부 기관들은 석유와 가스 시설에서 메탄 배출량을 80% 감소시키는 EPA 규정의 최종 확정했고, 지난해에만 거의 100개의 조치를 취했음
- 이번 발표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이 네 개로 요약할 수 있음. 즉, ▲메탄 배출 모니터링, 측정, 정량화 및 완화를 위한 상용 기술 솔루션을 사용해 영세업자가 석유 및 천연가스 운영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지원 ▲천연가스 압축기, 가스 연료 엔진, 가스 관련 플레어링, 액체 하역 작업, 생산된 물 및 기타 장비에서의 메탄 누출 처리 ▲장비 제공업체와 커뮤니티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모니터링 및 측정 기술 설치로 데이터에 대한 커뮤니티의 접근과 모니터링 참여를 개선 ▲지역 규모의 석유 및 가스 운영으로 인한 메탄 배출 감지 및 측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전국적인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임
- 지원금 신청자격은 업계, 학계, 비정부 기구, 부족, 주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해 다양한 미국 기관이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이 계획서에는 지역사회와 노동 참여, 일자리 창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접근성,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혜택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함
-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12월 EPA와 DOE가 저생산 유정의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환경을 복원하려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발표한 보조금 3억5000만달러(약 4870억원)를 기반으로 함
- 한편, 이번 자금 지원은 경제 부문 전반에 걸쳐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방정부의 전략이며, 최근 진행 중인 관련 부처의 몇몇 활동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EPA는 지난해 12월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서 발생하는 메탄 및 기타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을 대폭 줄이고, 최첨단 메탄 감지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며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최종 표준을 발표했다
- EPA는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요구하는 대로 EPA의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에 따라 석유와 천연가스 시스템에 대한 메탄 배출 보고 요구 사항을 강화, 확장 및 업데이트 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 EPA는 폐기물 배출 부과금 규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는 기업이 낭비적인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모범 사례를 채택하고 메탄 감소를 위한 단기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
- 교통부는 434만km가 넘는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에서 누출 감지 및 수리를 크게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음
- 내무부는 근로자들이 미국 전역에 있는 수만 개의 유정 및 가스정을 연결하기 위해 초당적인프라법(BIL)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약 50억달러(약 7조원)를 할당했음
- 농무부, EPA 및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메탄 배출의 주요 원인인 식품 손실 및 폐기물 예방을 가속화하기 위해 식품 손실 및 폐기물 감소와 유기물 재활용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 초안을 발표했다